A baby wearing a white knitted hat and a pink long-sleeved shirt is sitting on a blue patterned mat on a grassy lawn. The baby is holding a small black dog in their hands. The background shows a stone wall and green foliage.

개고기 식용문제와 동물해방론

개고기 식용 논란을 동물 해방론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옳은 것인가?

동물해방론에 관하여

동물해방론이란?

1975년 오스트레일리아 윤리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가 「동물해방 Animal Liberation」을 출간하면서 시작.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 기초하여 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며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지위를 주장하고 이에 따른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을 주장

개고기 식용 실태

	남자			여자			합계
	있다	없다	계	있다	없다	계	
10대	3	3	6	6	3	9	15
20대	191	33	224	138	100	238	462
30대	229	14	243	55	27	82	325
40대	230	11	241	93	28	121	362
50대	158	12	170	51	9	60	230
60대	57	3	60	13	5	18	30
70대이상	17	2	19	10	1	11	30
합계	885	78	963	366	173	539	1502

<표 1> 개고기를 먹어본 경험 -출처- 한국인과 개고기 (안용근 저) 2000.7

- 10년 전 한국인의 83%가 개고기를 먹어본 경험이 있음
- 2006년 조사에 의하면 55.3%가 개고기를 먹어본 경험이 있다고 함

개고기 찬반 여론조사

	찬성	반대
전체	53.2%	27.9%
남성	67.9%	17.9%
여성	37.5%	33.1%
20대	62.9%	31.2%
30대	55.1%	22.4%
40대	51.8%	34.3%
50대	46.9%	16.9%
부산/경남	65.3%	16.6%
대전/충청	62.3%	9.7%
대구/경북	53.6%	27.3%
서울	51.4%	27.2%

<표 2> 개고기 식용 합법화 조사 결과 -출처- CBS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2007.7

- 찬성과 반대에 속하지 않는 응답자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무응답자입니다.

반려동물은 식용금지?



반려동물이란?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를 주제로 하는 과학아카데미가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 . 고양이 . 새 등의 애완동물을 종래의 가치성을 재인식하여 반려동물로 부르도록 제안하였고 승마용 **말**도 여기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은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개칭하였다.

[출처] 반려동물 [伴侶動物, companion animal]

- 네이버 백과사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고,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는

종차별주의 (speciesism)이다. -피터 싱어-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에
(2008년11월4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강아지들이 개농장에서 죽어갔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이들의 가슴이 아픕니다.
이웃의 딸들이 아들이 슬픔에 잠깁니다.
이웃에 대한 성숙한 배려가 필요한때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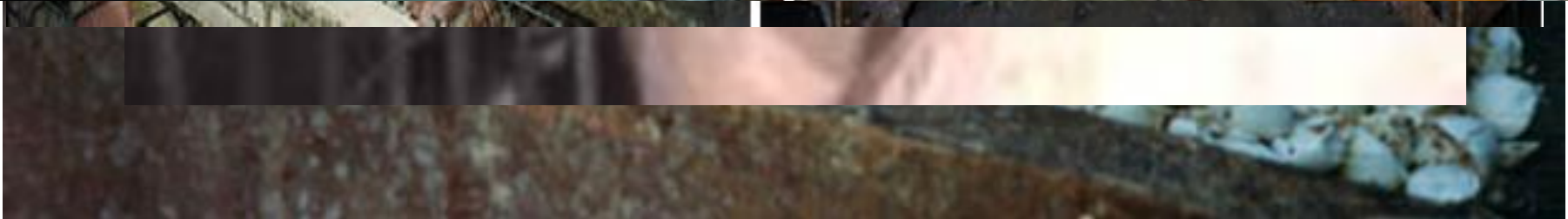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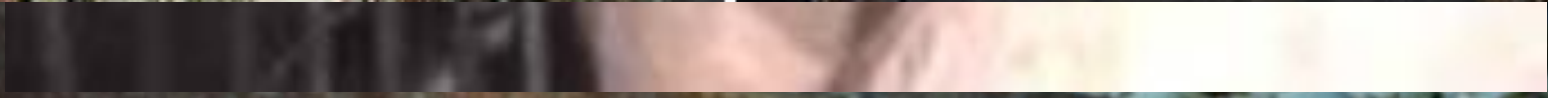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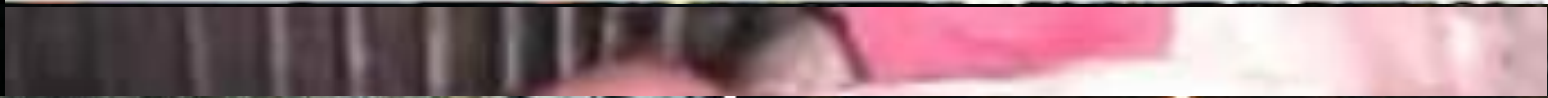


오른쪽 하단 프라이팬에 죽은 푸들이 내장이 다 파헤쳐진채 죽어있었습니다.
죽기전까지 최소한의 물도 밥도 없이 굶주림과 무서움에 떨며 도살되어진 것 입니다.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는 이같은 만행에 눈을 감고 귀를 막는것은 명백한 동물학대 입니다.

개 식용의 안타까운 현실

개 식용의
실질적인 문제:
-개들의 사육 시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비위생적
-도살 방법들이 매우
잔혹하다.
-유기견들이 잡혀져
식용에 사용되고 있다.

농민의 일생



결론

- 개가 인간과의 유대가 깊은 동물 종이라고 해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종 차별**적인 처사이므로 동물해방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 (물론 동물해방론적으로 본다면 동물 식용 자체를 금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 개 식용 문제가 비위생적이고 개가 동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아 지는 현실에서도 살되는 것은 옳지 않다.
- 위의 문제는 오히려 개 식용 문제를 **합법화** 하고 정부차원에서 언급되었던 문제의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지금 현재 개 식용 문제는 무법입니다.)